

상인 반발에 꺾인 '금남로 차없는 거리'

광주시 내년부터 폐지 잠정결정... 특화거리 조성 무산 시민들 아쉬움 속 문화전문가들 '성급한 결정' 지적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금남로 차 없는 거리'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 도로를 문화 특화거리로 만들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문화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단 3차례의 운영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25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계속 운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던 '금남로 차 없는 거리(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한

도심행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시는 당초 오는 12월까지 매주 예정된 행사도 모두 5차례로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지난 9월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분 개관과 함께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광주시는 매주 토요일 동구 금남공원~전일빌딩 구간 왕복 5차선 도로(길이 518m·폭 40m)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대신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음악회, 프리마켓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날 현재까지는 지난 9월 4·5일, 12일 등 단 3차례 운영됐다.

광주시는 당초 이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일요일에도 확대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단 3차례 프로그램 진행 이후인 지난 9월23~25일 '중간평가'를 명목으로 설문조사(상인 353명·시민 185명)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59%는 '차 없는 거리'가 문화도시 구축에 도움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고, 부정적인 답변은 14%에 그쳤다. 또 시민 52%는 '차 없는 거리'가 도심 공동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렸고, '행사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금남로하상가 등 상인들의 45%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내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없애기로 결정했

다. '차 없는 거리' 시행 전부터 충분히 예상해왔던 금남로 및 충곡 지하상가 상인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진흥교류재단 이기훈 상임이사는 "당장은 지하상가 상인들의 매출에 영향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등을 통해 금남로가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로가 되면 지하상가 상인들의 매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1~2년의 행사 뒤에 민원을 이유로 어렵게 시작한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사 안되자 강도 위장 30대 경쟁가게 사장 폭행해 구속

장사가 안 된다든 이유로 강도로 위장해 경쟁업체 대표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당구장 운영이 잘 되지 않자 경쟁업체 사장을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돈까지 빼앗으려 한 이모(38)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일 0시10분경 당구장 입구에서 퇴근하던 이 당구장 주인 A(50)씨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과 50여 m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자신의 업소에 손님이 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출소 이후 뺑질과 당구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당구장을 처분하려고 했으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복직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가운데 25일 관람객들이 김치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4일 개막한 광주김치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못된 승려' 징역 6년 선고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승려에게 징역 6년형이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구속 기소된 승려 A(6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2006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서 있는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피는 공덕이 있으나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장애에 끼친 해악은 그 공덕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

로 크다"며 "양부로서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 노출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공개를 면제했다. 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언던 특혜 의혹' 헛심 쓴 검찰 1년6개월간 허송세월

해경간부들 광주지법에 기소 대법 '관할법원 아니다' 판결

검찰의 판단 실수로 구남업체 '언던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의 실제적 진실이 1년6개월간 허송세월했다. 언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해경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관할 법원이 잘못 됐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은 그동안 헛심만 쓴 꼴이 됐다. 검찰은 세월호 발생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들을 다시 기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49) 해경 수색과장(나모(43) 재단대비계 경감 사건)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경 수사를 전담한 광주지검은 효율적인 재판 등을 위해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그러자 박씨 등은 관할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있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장소가 인천이나 진도군이고 자신들의 주소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시라고 주장했다. 어느 것 하나 광주지법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발생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이고, 범행실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인 진도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지방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남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돕고, 각종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언던측에 인도해 사고현장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지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며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이나 해남지원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포의 도로' 백운고가서 또 사망사고

급경사·급커브로 시공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광주 백운고가에서 또다시 운전자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4시5분경 남구 백운고가에서 강모(23)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마주 오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강씨가 숨지고 트럭 운전자 박모(49)씨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 선대에서 서구 방향으로 달리던 투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오는 2019년께 철거 예정인 백운고가는 폭 15.5m, 길이 385.5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일 평균 10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지난 1989년 건설 당시 백운공장을 가로지르는 경전철 철도 때문에 급경사·급커브로 지어졌지만 중앙분리벽이나 중앙분리봉도 없어 연평균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위험한 교통시설로 지적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C방서 밤 샌 스님, 여성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

○--PC게임방에서 밤을 샌 뒤 차를 몰고 사찰로 돌아가던 스님이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고강 신세.

○-25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강진군 병영면 J사찰 승려 신모(49)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45분경 강진군 군동면 동동마을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송모(여·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사고 현장에 남은 스키드마크(브레이크 자국), 후미등 파편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을 찾아낸 경찰은 사고 발생 12시간이 만에 사찰에 숨어있던 신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신씨는 "강진읍 PC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게임을 한 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만 대형사고를 쳐버렸다"며 때늦은 후회.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빚**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빚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